

실로시빈 연구와 종교적 경험

- 롤란드 그리피스 박사 인터뷰

| 롤란드 그리피스 인터뷰 | 데이비드 조이 인터뷰어 | <지금여기>편집부 옮김 |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 신비체험의 핵심이며 그것이 이타심과 사회정의의 느낌 또한 일으킵니다. 그런데 실로시빈이라는 버섯 역시 이러한 신비체험을 일으키며 인류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매캐너 같은 이는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로시빈과 같은 자연적 환각제가 죽어가는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살펴봅니다(편집자 주).

롤란드 그리피스 박사는 정신약리학자이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정신의학 및 신경과학 학부 행동생물학 교수다. 그는 지난 35년간 신경과학에서 정신약리학 연구로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실로시빈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연구는 <정신약리학Psychopharmacology>지 2006년 8월호에 '실로시빈은 개인적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의미와 영적 의의를 지닌 신비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¹⁾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의혹이 해소되었고, 그리피스 박사 개

1) Griffiths R., "Psilocybin can occasion mystical-type experiences having substantial and sustained personal meaning and spiritual significance," Psychopharmacology, Aug. 2006

인적으로도 가장 큰 관심분야 두 가지인 신경과학과 명상을 서로 접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2009년 12월 18일에 그리피스 박사를 인터뷰했다. 그는 세련되고 사려 깊었으며 어휘 선택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그의 실로시빈 연구와 영적 경험에 대한 그의 관심, 환각제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데이비드 실로시빈 연구에는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롤 란드 저는 정신약리학자로 훈련받았고 실험심리학과 실험약리학에서 수련을 거쳤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을 통해 주로 기분전환 약물, 대개 오남용 약물의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15년 전쯤 명상수련을 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영적인 면에 눈뜨게 되어 신비경험과 영적 변형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또 약물남용 약리학에 대한 제 연구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서 실존적인 의문을 품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신비적이고 영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기존의 환각제를 둘러싼 일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정신약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류의 의문을 다루는 쪽으로 몇몇 연구 프로그램의 방향을 틀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인적 교류와 소개를 통해 영성 수련 협의회(Council of Spiritual Practices)의 로버트 제시(Robert Jesse)를 처음 만났고, 그가 저에게 빌 리처드(Bill Richards)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등장한 화합물들을 연구해오면서 경력이 오래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로시빈의 작용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지요.

우리가 진행했던 연구는 원래 엄격하게 실로시빈의 작용에만 초점

을 둔 비교약리학 연구였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임상약리학에서 개발된 연구방법을 이용했고, 지난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연구에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제가 영성에 관심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심리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게 되었고 종교적인 경험을 건드릴 수 있는 연구수단을 찾았지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연구가 2006년에 발표됐는데 마치 신비 경험에만 초점을 맞춘 것처럼 읽혔습니다. 논문 제목이 '실로시빈은 개인적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의미와 영적 의의를 지닌 신비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여서, 제목 자체에서 그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영성에는 관심이 많았어도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가지론적인 입장에서 연구에 임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종류의 강력한 신비 경험이 실로시빈으로도 반드시 가능할 거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첫 번째 연구의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연구조사를 해야겠다고 느끼게 된 경위와, 최근 진행하시는 실로시빈 연구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롤란드 첫 번째 연구를 끝내고 14개월간의 후속 리포트를 발표한 뒤 우리는 건강한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실로시빈 용량 효과 연구를 실시했습니다만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불안해하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고(www.cancer.org) 매트 존슨 박사 Matt Johnson, Ph.D.와 함께 실로시빈에 의한 흡연 치료를 알아보는 작은 파일럿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시빈과 영적 수련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새로 착수했습니다. 명상과 영적 깨달음 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실로시빈을 투여하여, 이 약물이 수행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요. 첫 번째 연구에서 밝혀진 점은, 실로 시빈으로도 지난 수세기 동안 신비가들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묘사했던 자연적인 신비경험과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신비 경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 경험들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연적으로도 가끔씩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식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간절한 기도나 종교의례, 영적 수련 등의 조건하에서 그러한 경험시 나타나는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빈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실시한 여러 연구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런 경험을 비교적 높은 빈도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연구에서는 실험 자원자 중 70퍼센트 이상이 완전한 신비경험을 한 것으로 심리검사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높은 빈도로 신비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경험이 생물학적으로 정상임을 시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시사점은 이러한 경험의 선행원인과 후속영향을 모두 조사하는 엄격한 예비 연구가 최초로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선행원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성격, 유전적 특징, 타고난 기질이 신비 경험의 가능성을 높이는지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 경험의 후속영향에 대해서는 저희의 첫 번째 연구에서도 일부 기술해놓긴 했지만 종교나 신비주의, 영적 경험을 일으키는 약물에 대한 문헌에서 확실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 변화, 일부 인지 기능 전환 등이 그러합니다.

불안해하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로시빈에 의한 신비경험의 효과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여긴 부분은 신비경험의 효과가 치료 표

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암환자들에게는 만성적이고 임상적인 불안 우울 증세가 흔히 나타나며, 이것은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립니다. 암이나 다른 불치병 환자의 우울, 불안을 다스리는 기존의 약리적, 심리적 치료법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역학 자료에 의하면 영성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바로도, 영적 건강은 암환자의 무기력감을 상쇄시키며, 암환자들도 영성이라는 이슈에 관심이 높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암환자를 대상으로 LSD와 다른 기존의 환각제에 대한 상당한 양의 사전 연구가 있었습니다. 메릴랜드 정신의학연구센터Maryland Psychiatric Research Center의 빌 리처드 박사, 스탠 그로프 박사Stan Grof, M.D. 외 몇몇 분들이 연구를 진행했었지요. 사실, 빌 리처드 박사의 박사 논문 주제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임상 감각으로 암환자들이 흥미로운 목표그룹이 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저 또한 첫 번째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보고한 영적 경험을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암환자들이 더없이 적절한 연구 대상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세션 중에, 죽음에 대한 박사님의 관점이나 이해에 영향을 준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롤란드 신비 경험의 가장 큰 특징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합일감입니다. 그 합일감은 신성한 느낌, 가슴이 열리는 사랑의 느낌, 평소의 깨어있는 의식보다 이 경험이 더 실질적이라는 어떤 이성적 느낌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비 경험 이후에 겪을 수도 있는 존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합일의 경험이 가장 큰 중요

성을 띤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이 합일의 경험을 종교심리학의 영역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적 신비 경험’과 ‘외적 신비 경험’이지요. 합일 경험의 외적인 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영성 질문지 가운데 하나인 후드 신비주의 검사 Hood Mysticism Scale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몇 문항을 읽어드리죠.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느꼈던 경험”, “만물에 의식이 있는 것 같은 경험”, “나 자신이 만물과 하나임을 깨달음”,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로 합일되는 듯한 경험”, “죽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경험”.

신비 경험의 이 같은 특징은 그래서 의식이 만물에 내재해 있으며 살아있는 것이라는 직관적 통찰과 의식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이쯤되면 의식의 연속성 혹은, 좀더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영혼 불멸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 경험은 자신의 존재를 육체적 몸으로 제한하는 한정적인 존재감과 물질주의적인 틀을 무 뜨립니다. 그래서 이 미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혀 미묘하지 않은 인지적 전환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재정비하는 데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환각제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롤 란드 심오한 신비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아나 삶에 대한 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자아의식이 뿌리부터 달라졌다고들 말하지요.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타주의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타인의 욕구에 좀 더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 변화가 합일감이나 신비경험의 다른 특징 이룰테면 신성함,

깊은 존경, 가슴이 열린 사랑, 이성적으로 진실이라는 느낌과 함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고한 느낌 등에 기인할 것이라고 미뤄 짐작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비 경험은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자아, 삶, 타인에 대한 태도 또한 극적으로 바꾸어놓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앞으로 실로시빈 연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롤란드 저는 과학자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신비 경험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모든 과학적 의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신비 경험의 신경약리학에 관심 있고, 그러한 경험의 심리학적, 생리학적 결정 인자에도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원자뿐 아니라 투병중인 환자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 임상적 혹은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경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의문이 해결된다고 해도 실로시빈이 치료약으로 승인받게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크게 중요해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경험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꼭 실로시빈에 달려있다고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간 의식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에 실로시빈이 매우 흥미로운 수단인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기저를 이루는 신경약리학과 신경생리학을 더 잘 이해한다면, 현재 실로시빈으로 가능한 수준보다 더 높은 빈도로 신비경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합물 내지 비약리학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 연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경험의 핵심적인 특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렬한 느낌입니다. 그때 자신감과 명료한 느낌뿐 아니라 공동의 책

임, 즉 이타심과 사회정의라는 느낌도 함께 오지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행동규범을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이러한 감성은 세계의 모든 종교적, 윤리적, 영적 전통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효과의 본질과 후속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에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그것이 바로 제가 〈MAPS Bulletin〉 지를 편집하면서 생태와 환각제를 다룰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환각제는 사람들에게 생태적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롤란드 맞습니다. 생태적 인식은 이런 종류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이타적 감수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생태학이 이런 경험과 깊이 연관될 수 있죠. 만약 만물의 상호연결성과 만물에 내재된 의식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난다면, 다른 사람과 이 지구를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관점을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에 대입해본다면, 만물에 의식이 있다면 죽음이나 죽어가는 과정이 그리 두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거대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끝) 

- 이 글은 'Psilocybin studies and the Religious Experience'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이 | **롤란드 그리피스 박사** Roland Griffiths, Ph.D. |

인터뷰어 | **데이비드 조이** David Joy | 〈MAPS Bulletin〉지 편집자

역자 | **〈지금여기〉편집부**